

준비된 말하기 연습을 통한 발성휴지 개선효과 고찰

김보애*

Boae Kim (2022),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Speech Training with Script. *This is a research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raining speech with the script prepared in advance can reduce the number of filler words in speech. It set the two research questions: (1) Is the method of writing the script in advance for presentation and exercise presentation with the script effective in correcting the habit of using filler words in actual presentation?, (2) Is the method of writing the script in advance for presentation also effective in reducing filler words in the 'free talking' situation where the script is not available? This study suggested the way of using script as a way of suppressing the use of them, and got meaningful results from the experi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preparation for presentation with script was effective in reducing filler words and filled pauses in actual presentation, and, beyond that, reducing them in the extemporaneous free talking situ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public of Korea)*

Keywords: filled pause, script, Japanese language, presentation, free talking

주제어: 발성휴지, 대본,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토론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1. 서론

말하기는 보편적인 외국어 학습방법이지만, 학습자나 학습목표에 따라 다양한 훈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본고는 전문통역사를 목표로 한국어와 일본어 통번역을 전공하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준비된 말하기 연습을 통한 발성휴지 개선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통역과 같은 즉흥적인 상황의 발성휴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즉흥적인 상황의 노출만을 반복하는 것보다 미리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반복훈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해보자 하였다.

전문통역사의 활동범위는 매우 다양하여 순차통역, 동시통역은 물론이고 대규모 행사에서 외국어 사회자나 진행자로서 활약하기도 한다. 이들 통역사에게는 원어민에 가까운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정확하고도 유창한 언어 구사능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통번역 석사과정의 수업은 통역사의 활동 영역을 고려하여 정확하면서도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훈련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은 사전에서 발음이나 악센트를 검색하고,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따라 하는 훈련을 하며, 이밖에도 다양한 훈련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유창하게 발화하는 연습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성휴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자가 발성휴지에 관한 피드백을 하면 학생들은 개선하려는 의식은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훈련방법 없이 의식하는 것만으로는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

본고의 실험은 저자의 라디오방송 진행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저자는 매주 15분 분량의 라디오방송 대본집필 및 진행을 담당하며, 방송녹음 전에 대본을 토대로 연습하고 음성을 녹음하여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문제점을 파악하면 대본에 이를 표시하고, 다시 연습, 녹음, 청취를 반복하여 실제 방송에서는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때 대본이 없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대본에 표시할 수도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연습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험을 발성휴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말하기 훈련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통번역 전공 석사과정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통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국어는 물론 상당한 수준의 전공 외국어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저자는 통번역대학원에서 말하기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이들 과목이 자칫 단순한 프리토킹 수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 고민해왔다. 저자가 말하기 관련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목표는 막힘없는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 공식석상에서 순발력 있고 격식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실험은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혹여 그런 학생들에게 대본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 여러 즉흥 상황에서 말하기에 자주 노출시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기 훈련에서 대본을 활용하는 의의는 대본을 활용해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대본에 반영해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본 활용방법이 발성휴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먼저 입학 시점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고, 이때 나타난 발성휴지의 빈도를 기록한다. 이는 실험 대상의 실험 전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대본을 활용해 훈련한 실험군을 대상으로, 1학기 및 2학기 수업에서 발성휴지의 변화를 고찰한다. 둘째, 대본을 활용해서 훈련한 실험군과 대본을 활용하지 않은 실험군을 비교하여 사전에 대본을 작성할 수 있는 ‘발표’ 상황에서 발성휴지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즉흥적으로 말하는 ‘토론’에서도 두 개의 비교군 사이에서 발성휴지 개선효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즉흥적으로 말하는 토론에서 개선효과를 확인한 이유는, 대본을 활용한 말하기 훈련이 ‘발표’ 상황에서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확인되었더라도 궁극적으로 즉흥적인 말하기인 ‘토론’ 상황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 통역을 위한 교육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질문은 두 가지로 선정하였다. 첫째, 혼자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일정시간을 ‘발표’하기 위해 미리 대본을 작성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 수업에서는 사전에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미리 대본을 작성하여 훈련하는 방법을 지속하였는데, 이 실험군을 1학기 및 2학기에 걸쳐 추적 관찰한다. 둘째, 대본을 활용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이 대본이 없는 ‘토론’ 상황에서도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 위와 같이 대본을 활용한 발표 준비 훈련을 지속한 경우 즉흥적인 토론 상황에서도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2. 발성휴지

일본어 말하기에 나타나는 발성휴지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え(에)’ 또는 ‘ええ(에에)’ 등을 비롯하여, 모음의 영향을 받지 않은 ‘あれ(아레)’, ‘いや(이야)’, ‘そう(소우)’ 등이 있다. 일본어 발성휴지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고는 말하기에서 발성휴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발성휴지의 종류에 대한 논의는 최소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한편 본고의 발성휴지의 범위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것뿐 아니라,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나타내는 표현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발성휴지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filler*, *filler word*, *filled pause*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단어가 지칭하는 개념은 일률적이지 않다. 또한 *filler*에 대한 한국어 번역도 “말하는 도중에 잠시 쉬을 주기 위해서 삽입하는 표현들(이기갑 1995)”, “삽입표현(남길임 2011)”, “간투사(최문선 2015)” 등으로 다양하다. 번역된 명칭이 다를 뿐 아니라 지칭하는 개념도 약간씩 다른 경우가 많아, 한국어로도 규범화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발성휴지로 용어를 통일하되, 인용에서는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한 표현을 차용하기로 한다.

말하기의 포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서종훈(2013)에 따르면 청중 앞에서 말의 흐름이 유창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쉬는 말하기의 불안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의도한 쉬는 발화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오히려 발화의 유창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말하기에서 포즈는 사용방식에 따라 불안감의 표출이 될 수도 있고 발화의 유창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발성휴지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도구로 인식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하기의 유창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Fagan(2009)은 인터뷰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성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일상대화에서 발성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화에서는 발성휴지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담화표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林始恩 2020).

그렇다고 해서 발성휴지가 대화에서 긍정적이지만 한 것은 물론 아니다. 적당

한 수준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지나치게 많은 발성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어 회화의 비유창성에 관한 연구에서 林裕二(2011: 66)는 비유창성을 주저함(hesitation), 반복(repeats), 수정(retrace and repair), 불완전한 발화(utterance leftgrammatically incomplecte)로 정의하였다. 발성휴지도 주저함 표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柳澤浩哉, 馮文彦(2019: 15)는 일본어 자연회화에서 자신에 대해 수줍어하며 말하거나 자신의 내면에 대해 말할 때 ‘まあ(마아)’가 등장한다며, 이것은 ‘あの(아노)’, ‘ええと(에에토)’ 등의 필러와 함께 주저함과 자신감 결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Mcgregor(2016)는 연설의 경우 발성휴지가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발성휴지를 제거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설은 화자가 청중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청중의 환호를 끌어내는 등 상호작용을 하며 말을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프레젠테이션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의식적으로 발성휴지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발성휴지를 줄일 수 있을까. Kobe(2017)는 커뮤니케이션 코치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음성을 녹음해서 청취할 것을 권하며, 발성휴지를 심호흡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며 매우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본고는 대본을 작성해서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고, 음성을 청취하며 문제점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대본에 표시하여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데이터분석에 기반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한편, 한연희(2012)는 발표능력의 수준은 실전에서의 수행으로 평가되지만 발표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준비능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역에서도 발성휴지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최문선(2015: 185-196)은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학습자의 비유창성의 특징을 통역이 너무 느린 경우, 통역할 때 간투사(filler)가 많은 경우, 통역 시 이미 발화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자주 수정하는 경우로 특정하며, 학습자의 통역에서 순차통역은 분당 2.0회, 동시통역은 분당 0.7회의 간투사가 관찰되었고, 평균 길이는 모두 0.3초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문선의 연구는 통번역 전공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본고의 연구대상인 1학년 학생들과는 발성휴지의 사용빈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민(2016: 64)은 통역 도착어의 비유창성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휴지와 반복행위, 발화자의 말하기 습관으로 인한 유연휴지,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같은 음소나 표현을 반복하거나 틀린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행동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처럼 통역에서 발성휴지가 비유창성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최문선(2018: 184-192)은 통역사의 전문성에 따른 동시통역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총 14종의 망설임 표지가 관찰되었고, 이 중에서 ‘어’가 전문가 통역결과물에서 총 55회, 초보자 통역 결과물에서 총 153회 발견되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비교해 초보자의 통역에서 약 3배의 망설임 표지가 관찰되었다는 결과는, 통역교육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원보(2018: 34-39)는 영한 순차통역 학습자의 비유창성을 통역시간, 간투어, 수정, 반복 및 머뭇거림으로 정의하며, 간투어는 두뇌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긴 휴지시간을 메꾸어서 어색함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통역내용의 전달을 방해하는 비유창성의 표지임에는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실제로는 발성을 하지 않은 무음의 휴지도 통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遠山, 松原(2005)는 실험을 통해 강연자의 발화속도가 비교적 느린 강연에서는, 통역사의 포즈가 짧고 포즈의 길이에 격차가 적은 통역이 듣기 좋은 통역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遠山, 松原(2007: 40-46)는 동시통역에서 휴지와 필러는 위화감을 주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며, 동시통역이 일반적인 일본어 발화와 다른 인상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필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일반 발화와 비교해 통역사의 발화에서 필러의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발성휴지는 국내외 연구자에 따라 지칭하는 용어 및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다.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발성휴지는 망설임, 주저함, 자신감 결여, 군더더기, 의미나 지시대상이 없는 표현, 비유창성, 동시통역에 위화감을 주는 원인 등과 같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데이터 분석

실험대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통번역을 배우는 1학년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입학시험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

학하는 만큼 모국어와 전공 외국어에서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A반과 B반으로 나뉘어, 전공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수강한다. 저자는 A반과 B반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에 언어숙달, 2학기에 시사토론 수업을 강의하였다.

연구질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 3가지이다. 첫 번째 데이터는 1학기 2차시 ‘자기소개’에서 A, B반의 각 발성휴지 빈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실험 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두 번째 데이터는 한 학기 동안 미리 대본을 작성해 훈련한 실험군인 A반과 대본을 활용하지 않은 실험군인 B반의 2학기 4차시 ‘발표’에서 발성휴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미리 대본을 작성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세 번째 데이터는 대본을 활용해서 훈련한 실험군인 A반과 대본을 활용하지 않은 실험군인 B반을 대상으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토론’에서 발성휴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본을 활용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이 대본이 없는 토론 상황에서도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실험 당시 한 학기 수업은 총 16차시로 구성되었고, 대상으로 삼은 두 번의 수업은 모두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데이터분석 과정에서 발성휴지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고 횟수만 카운트하였고,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학생들의 성명 대신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하였다.

3.1. 신입생들의 기초실력

1학기 언어숙달 수업은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등 매주 외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언어숙달 수강생은 석사과정 신입생들로, A반은 6명, B반은 7명이었다. 2차시 수업시간에는 모든 학생에게 3분 분량의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하였고, 이 영상에서 발성휴지가 나타나는 빈도를 기록하였다. 발성휴지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고 횟수만 카운트하여, 1분당 횟수로 환산하였다. 표 1은 발성휴지가 나타나는 빈도를 학생별로 기록한 것이다. 자기소개 영상의 길이, 발성휴지 횟수, 그리고 1분으로 환산한 횟수를 정리하였다. 학생들의 음성에서 A반은 1분당 4.4회, B반은 1분당 4.9회의 발성휴지가 확인되었다. 즉, 비교군인 A, B반의 평균 발성휴지는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표 1. 신입생 언어숙달 2차시 발성휴지

A반				B반			
학생	발표시간 (초)	횟수	1분당 횟수	학생	발표시간 (초)	횟수	1분당 횟수
A1	184	1	0.3	B1	179	0	0.0
A2	169	9	3.2	B2	170	1	0.4
A3	161	15	5.6	B3	179	2	0.7
A4	156	15	5.8	B4	174	10	3.4
A5	164	16	5.9	B5	200	19	5.7
A6	193	20	6.2	B6	171	20	7.0
				B7	184	51	16.6
평균	1027	76	4.4	평균	1257	103	4.9

언어숙달 수업에서는 학기 중 모든 학생이 사전에 제시한 주제에 따라 20분 분량의 발표를 1회씩 담당하였다. 발표는 학기 중 1회이지만, 발표자 이외의 학생도 매주 각각의 역할을 맡아 3분에서 5분 분량으로 발화하도록 계획되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사전에 대본을 준비할 수 있는 때도 있고, 즉흥적으로 말해야 하는 때도 있었다.

한 학기에 걸쳐 관찰해본 결과 A반과 B반의 수업 준비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언어숙달 수업에서 대본을 작성하는 것은 과제는 아니었지만, A반은 매주 발표 수업 전에 모든 발표자가 대본을 작성하여 교수자에게 제출하였고, B반은 그렇지 않았다. 즉 언어숙달 수업은 A반과 B반에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계획되었지만, 결과적으로 A반은 대본을 활용하였고 B반은 대본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담당 교수자의 피드백 방식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미리 대본을 제출한 A반의 경우, 저자가 대본의 내용을 미리 점검할 수 있었고 수업 당일에는 내용 이외에 발표자의 반복되는 버릇이나 약점 등을 대본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드백할 수 있었다. 예컨대 발성휴지에 대해 언급할 때, 어떤 경우에 어느 부분에서 발성휴지가 자주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드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개선해야 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즉 대본을 활용하는 훈련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에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3.2. 대본을 활용하여 훈련한 A반의 1학기 및 2학기 비교

2학기 시사토론 수업의 수강생은 A반은 8명, B반은 7명이었다. A반은 1학기에 언어숙달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2명이 추가로 수업을 신청하였고, B반의 수강생은 1학기과 같았다.

학교 웹사이트 학사안내 석사과정 교과목 개요에 따르면, 시사토론은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발표 및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여 준비된 발언에서부터 자유로운 발언을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 할 수 있도록 훈련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에서는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4차시 수업의 경우 1교시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 수강생 전원이 5분 분량의 발표를 하고, 2교시에는 해당 주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과목 개요에 따르면, 5분 분량의 발표는 ‘준비된 발언’, 토론은 ‘자유로운 발언’이다. 연구에서는 1교시에 학생들이 한명씩 발표한 음성데이터, 그리고 2교시에 토론한 음성데이터, 두 가지에서 각각 발생휴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자 이외에 다른 한명의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두명이 분석한 결과로 데이터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먼저 1교시에 학생들이 한명씩 발표한 음성데이터이다. 1학기에 대본을 활용해 훈련했던 A반에 주목하여, 1학기과 2학기의 변화를 비교해본다.

표 2. 대본을 활용하여 훈련한 A반의 시사토론 4차시 발표 발생휴지

A반			
학생	발표시간 (초)	횟수	1분당 횟수
A1	355	9	1.5
A2	330	6	1.1
A3	404	19	2.8
A4	342	21	3.7
A5	379	4	0.6
A6	402	38	5.7
A7	374	0	0.0
A8	450	19	2.5
합계 및 평균	3036	116	2.3

1)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학사안내→석사과정→교과목개요) (<http://gsit.hufs.ac.kr/>)

표2는 A반 학생들의 발표 음성에서 발성휴지를 카운트한 결과를 학생 별로 정리한 것이다. 학생 별로 발표시간, 발성휴지 횟수, 그리고 1분으로 환산한 횟수를 정리하였다.

다만 1학기과 2학기의 데이터를 각각 비교해보는 데 있어 A반은 2명의 수강생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A반의 분석대상을 6명으로 하면 발성휴지는 1분당 평균 2.6회이고, 분석대상을 8명으로 하면 발성휴지는 1분당 평균 2.3회이다.

다음으로 표3은 A반의 1학기과 2학기를 비교해보기 위해, 1학기 자기소개 및 2학기 발표의 발성휴지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 별로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표시하였다. 이 결과에서 A반은 1학기 4.4회에서 2학기에는 2.3회로 전체 평균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학기과 2학기 수업에서 발성휴지의 추이를 학생별로 보면, 1학기에 발성휴지가 가장 적었던 A1은 2학기에 전체 학생 중 유일하게 증가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1학기과 비교해 2학기에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참고로 A6은 1학기에 발성휴지가 가장 많았던 학생인데, 1학기과 2학기를 비교한 결과에서 가장 감소 폭이 작았다. 2학기에 새로 수업을 신청한 2명 중 A7은 발성휴지가 없었는데, 참고로 이 학생은 전체 학생 중 유일하게 일본어가 모국어인 학생이다.

표 3. A반의 1학기 및 2학기 발성휴지 비교

A반			
학생	1학기	2학기	증감
A1	0.3	1.5	증가
A2	3.2	1.1	감소
A3	5.6	2.8	감소
A4	5.8	3.7	감소
A5	5.9	0.6	감소
A6	6.2	5.7	감소
A7	-	0.0	-
A8	-	2.5	-
A반 평균	4.4	2.3	감소

한편, 말하기의 숙달도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전부 대본을 활용한 훈련의 효과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말하기를 둘러싼 여러 변수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에서 대본 활용의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발성휴지를 사용하였는데 저자는 대본을 토대로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개별적으로 훈련방법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한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발성휴지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전체 학생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통계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를 위해 미리 대본을 작성해서 훈련하는 방법은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3. 대본을 활용한 A반 및 대본을 활용하지 않은 B반 발표 비교

대본을 활용하여 훈련한 A반의 1학기 및 2학기 변화를 확인해보았는데, 이 결과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 학기 동안 학습한 결과로, 대본 활용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본을 활용한 A반과 대본을 활용하지 않은 B반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4는 B반의 1학기 및 2학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학기 자기소개 및 2학기 발표의 발성휴지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서, B반은 1학기 4.9회에서 2학기에는 9.3회로 전체 평균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반과 B반은 1학기에는 발성휴지가 나타나는 빈도에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2학기에는 A반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B반은 두배 가까이 늘었다. 동일한 조건의 수업환경에서 이만큼의 변화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4. B반의 1학기 및 2학기 발성휴지 비교

B반			
학생	1학기	2학기	증감
B1	0.0	10.9	증가
B2	0.4	5.6	증가
B3	0.7	4.7	증가
B4	3.4	10.1	증가
B5	5.7	6.9	증가
B6	7.0	14.8	증가
B7	16.6	11.9	감소
B반 평균	4.9	9.3	증가

1학기에 발성휴지가 0회였던 B1은 2학기에 10.9회로 증가하였다. 다른 학생들도 전체 7명 중 6명이 발성휴지가 증가하였다. 1학기에 발성휴지가 가장 많았던 B7은 유일하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많은 수준이었다.

A반이 한 학기 동안 대본을 활용한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으로 발성휴지를 개선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반과 B반을 비교한 결과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는, 발표를 위해 미리 대본을 작성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저자는 B반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 발성휴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향을 인지하였다. 다른 사람의 발화를 듣거나 같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발성휴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B반의 경우처럼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나 학교 수업과 같은 집단훈련은 서로의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발성휴지를 개선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위해서는 대본이 있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3.4. 준비된 발표 및 즉흥적인 말하기 토론 비교

여기까지는 발표에서 발성휴지를 분석한 데이터를 고찰해봤는데, 이번에는 즉흥적인 말하기인 토론의 발성휴지와 비교해보겠다. 발표와 달리 토론은 즉흥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다른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토론 데이터는 학생 별로 분류하지 않고 토론시간 전체에서 발성휴지를 카운트하여 반 별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A반의 경우 신규로 수강신청을 한 2명을 포함하여 전체 수강생 8명의 음성이 모두 포함된다. 모든 데이터는 1분당 횟수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표 5. 시사토론 4차시 토론 발성휴지

	A반			B반			
	토론시간(초)	횟수	1분당 횟수	토론시간(초)	횟수	1분당 횟수	
발표	3036	116	2.3	발표	2763	429	9.3
토론	711	92	7.8	토론	999	181	10.9
전체	3747	208	3.3	전체	3762	610	9.7

표5는 발표 및 토론에서 A반과 B반 학생들의 발성휴지 횟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발표는 A반은 1분당 2.3회, B반은 1분당 9.3회이고, 토론은 A반은 1분당 7.8회, B반은 1분당 10.9회이다. 발표와 토론의 변화를 살펴보면, A반은 발표보다 토론에서 3배 이상 많은 발성휴지가 확인되었지만, B반은 발표와 토론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에서 A반은 발표를 위해 더 많은 연습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B반은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실력으로 발표를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반의 경우 발표와 토론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었고 B반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본을 활용한 훈련의 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토론에서 A반과 B반의 발성휴지 횟수를 보면 그 차이는 무려 3.1회에 달한다. 최초 1학기 자기소개에서 발성휴지가 나타난 횟수가 A반은 4.4회, B반은 4.9회로 큰 차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즉흥적인 말하기인 토론에서 A반과 B반의 발성휴지 사용 횟수가 3.1회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대본을 활용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은 대본이 없는 토론 상황에서도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반과 B반 모두 즉흥적인 말하기인 토론 상황에서 많은 발성휴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훈련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설문조사 결과 및 발성휴지의 예시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4. 분석결과 고찰

4.1. 대본 활용에 대한 조사

1학년 과정을 마친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A반은 8명 전원, B반은 7명 중 6명이다. 설문조사는 연구목적으로 활용됨을 밝혔고, 수업평가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시사토론 4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이 5분 분량의 발표를 하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준비하였는지 질문하였다. 객관식으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발표방식에 대해 ①발표대본을 보면서 발표하였음, ②간단하게 메모한 내용을 보면서 발표하였음, ③발표자료를 보면서 발표하였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발표자료는 발표할 때 화면에 띄우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뜻한다.

표 6. 시사토론 설문조사 결과

	발표대본을 보면서 발표하였음	간단하게 메모한 내용을 보면서 발표하였음	발표자료를 보면서 발표하였음
A반(8명)	6	2	-
B반(6명)	1	4	1

이 질문에서 A반은 8명 중 6명이 ‘①발표대본을 보면서 발표하였음’을 선택하였고, 나머지 2명은 ‘②간단하게 메모한 내용을 보면서 발표하였음’을 선택하였다. 반면 B반은 7명 중 1명만이 ‘①발표대본을 보면서 발표하였음’을 선택하였고, 4명은 ‘②간단하게 메모한 내용을 보면서 발표하였음’을 선택, 나머지 1명은 ‘③발표자료를 보면서 발표하였음’을 선택하였다.

이 응답을 보면 3장에서 확인한 발성휴지 분석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A반은 대체로 대본을 보면서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에서 발성휴지가 1분당 2.3회로 적었고, B반은 대체로 대본이 없이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에서 발성휴지가 1분당 9.3회로 많았다. 발표 당일에 대본 덕분에 발성휴지가 적었을 수도 있지만, 이뿐 아니라 대본을 활용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많은 횟수 훈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토론에서 발성휴지가 나타난 횟수와 함께 고찰해보자면 이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A반은 1학기 언어숙달에서도 대본을 활용하였고 2학기 시사토론 발표에서도 대체로 대본을 활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훈련의 결과가 대본이 없는 토론에도 나타난 것이다. A반은 발표와 비교하면 토론에서 발성휴지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횟수는 1분당 7.8회에 그쳤다. 반면에 B반은 1학기 언어숙달과 2학기 시사토론 발표에서 대체로 대본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발표뿐 아니라 토론에서도 1분당 10.9회로 상당히 많은 발성휴지가 확인되었다.

한편, 설문조사에는 발표대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주관식 문항이 있었다. 사전에 발표대본을 작성한 경우, 대본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긴장이 덜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응답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 ① 연습하는게 중요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외우는 연습보다 읽는 연습에 집중을 하고 발표를 하니 훨씬 안정감있게 긴장감 없이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② 가능한 연습을 많이 해서 원고를 중간에 안봐도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 ③ 원고에 자주 틀리는 악센트나 발음, 끊어 읽어야 할 부분들을 표시해두면서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 ④ 원고 위에 원고를 보면서 발표하는 부분, 청중을 바라보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두면서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답변들의 공통점은 ‘연습’이다. 대본을 작성하는 것의 의의는 단순히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본을 토대로 연습하기 위해서이다. 간혹 대본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대본을 작성하는 이유는 대본을 잘 활용해서 연습을 반복하기 위해서이다. 대본 자체가 발성휴지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본을 활용한 훈련이 발성휴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습이 필요할까. 다음에서는 예시를 통해 대본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4.2. 발성휴지의 예시

일본어 말하기 수업을 관찰해본 경험에서 보면, 발성휴지를 줄이는 일은 단순히 말하기 연습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저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청취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훈련할 것을 주장해왔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한다.

다음은 발성휴지가 많은 한 학생이 발표한 음성의 일부를 전사한 것이다. 내용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삭제하였다. ‘에’ 또는 ‘에에’와 같이 모음을 늘어트리는 발성휴지는 들리는 소리대로 표기하였고, ‘이제’, ‘뭐랄까’ 등과 같이 발화의 목적이 없는 발성휴지는 한국어 뜻으로 바뀌서 표기하였다.

- ① そして、ええ、このように〇〇はこのような対策をとっていますが、ええ、例えば、〇〇の知事だったり、ええ、〇〇の、え、し、市長だったり、え、普通に、もう、韓国と同じように、ええ、なんだろう、こう、外に出ないでください、というふ

うな対策をとっていますので、その、国全体が〇〇になっている状態ではない、らしいです。

(그리고, 에에, 이처럼 〇〇는 이러한 대책을 세웠는데, 에에, 예를들어, 〇〇지 사나, 에에, 〇〇의, 예, 시, 시장이나, 예, 평범하게,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예 에, 뭐랄까, 이렇게,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라는 식의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그 나라 전체가 〇〇가 된 상태는 아닌 듯 합니다.)

①은 발성휴지를 사용하는 간격이 짧고 그만큼 발성휴지의 횟수도 많다. 특히 단어나 어구 뒤에 불필요한 포즈가 많은 편인데, 포즈 다음에 발성휴지가 나타나고 그 후에 다음 단어나 어구를 말하는 특징이 있다. 포즈와 발성휴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발성휴지 자체보다 먼저 포즈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하는 연습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에에, 뭐랄까, 이렇게”처럼 혼잣말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② ええ、しかし、このような措置をとったの、とったんですが、緩い措置で、その、感染に脆弱な、え、階層、え、ある、〇〇が主に、え、住居している施設が打撃を受けます。ええ、感染リスクが高い〇〇が住んでいた、その、〇〇を封鎖していなかったことから、ええ、コロナウィルスの被害はとて大きくまりました。(에에,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한, 취했지만 느슨한 조치로, 그, 감염에 취약한, 예, 계층, 예, 있는, 〇〇가 주로, 예, 주거하고 있던 시설이 타격을 받습니다. 에에, 감염위험이 큰 〇〇가 거주하던, 그, 〇〇를 봉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에, 코로나바이러스의 피해는 아주 컸습니다.)

②는 발성휴지 사용에 특별한 경향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에’ 또는 ‘에에’가 습관이 된 경우이다. 이로 인하여 발화의 리듬이 흐트러진 결과로, 원래 포즈가 있어야 되는 부분 및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성휴지가 확인된다. 참고로 이 학생은 평소 일본어가 전반적으로 유창한 편인데 유난히 ‘에’ 또는 ‘에에’가 많은 특징이 있다.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했는데, 오히려 일본어가 유창하다는 이유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〇〇の〇〇の10%の当たる28兆円を、ああ、28兆円規模で実施しました。これは、韓国のウォンに換算すると、およそ313兆ウォンに、あ、のびります。そして、二回目は、8月15日、ええ、152兆円規模、つまり、前回より5倍以上の〇〇を打ち出しています。

(○○○○의 10%에 해당하는 28조엔을, 아아, 28조엔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3조원에, 아,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15일, 에에, 152조엔 규모, 즉 지난번보다 5배 이상의 ○○을 내세웠습니다.)

③은 전체 학생 중 발성휴지가 특별히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예문과 같이 숫자가 나올 때 발성휴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수업에서는 최대한 아이 컨택을 하며 발표할 수 있게 하였는데,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서 대본을 확인하며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발성휴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성휴지 대신에 짧은 포즈를 삽입하거나, 숫자가 나오기 전에 발화속도를 조절하여 원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순차 통역에서 노트테이킹을 확인하며 통역할 때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①과 ②는 발성휴지를 버릇처럼 사용하고 있고, ③은 정보처리가 늘어날 때 발성휴지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말하기에서 발성휴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말하기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경우를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으로 확인해보겠다. 발성휴지가 문제가 되는 학생은 무음의 포즈가 많은 경향이 있다. 적당한 포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필요 이상의 포즈는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 포즈가 발성휴지로 바뀌기도 한다. 바뀌지 않으면, 불필요한 포즈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발성휴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앞선 데이터분석에서 B1은 1학기에 유일하게 발성휴지가 한번도 없었는데, 2학기에는 1분당 10.9회의 발성휴지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B1의 음성을 Praat에 입력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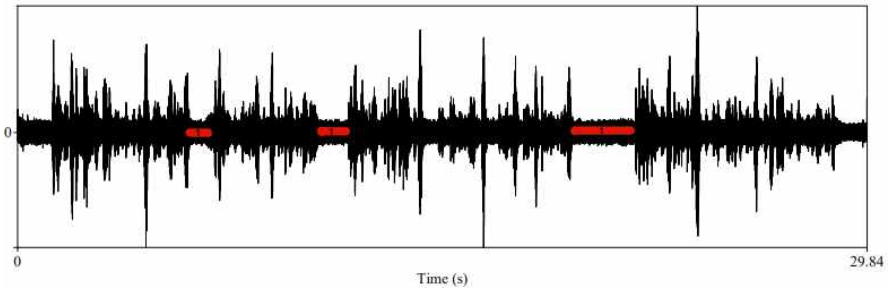


그림1. B1의 언어속달 음성

그림1은 1학기 언어숙달 자기소개 음성 중 일부이고, 그림2는 2학기 시사토론 발표 음성 중 일부로, 각각 약 30초 분량의 음성이다. 같은 길이의 음성임에도 그림1과 그림2의 스펙트럼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포즈 및 발성휴지 부분에 만 주목하여 각각을 색상과 숫자로 표시하였다.

언어숙달 음성은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고, 글자수는 175자이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1번 부분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발생한 포즈이다. 이 밖에도 문장 내에서 짧은 포즈가 확인된다. 발성휴지는 없었다.

시사토론 음성은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고, 글자수는 154자이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1번 부분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포즈이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2번 부분은 발성휴지로, 30초 동안 8번 확인되었다. 발성휴지는 음량, 길이, 모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크게 움직이기도 했고 무음의 포즈와 유사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3번 부분은 문장 안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포즈가 아닌, 예컨대 명사와 조사 사이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포즈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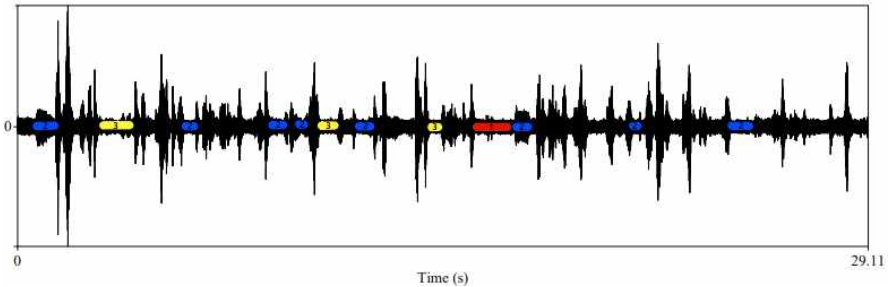


그림2. B1의 시사토론 음성

분석에 사용한 음성의 길이는 둘 다 약 30초로 같지만, 스펙트럼의 모양은 다르다. 언어숙달은 문장 간 포즈 이외에도 문장 내에서 짧은 포즈가 다소 확인된다. 문장 안에 적절한 포즈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시사토론은 문장 간 포즈가 1회 있었고, 이 밖에 문장 내에서 발성휴지와 비정상적인 포즈가 확인된다. 약 30초 분량의 발화에서 이만큼의 포즈와 발성휴지가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포즈를 둘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기로 하다. 그 결과, 발화 상 포즈가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 발성휴지로 대체되었고, 그 밖에도 포즈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서도 발성휴지가 나타났다.

글자수는 언어숙달 175자, 시사토론 154자로, 단순하게 비교하면 시사토론에서 정보가 줄어들었다. 시사토론 음성은 정보가 줄어든 만큼의 시간이 발성휴지 등으로 채워져서,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발화가 되었다. B1의 경우 언어숙달 음성은 발화의 리듬이 적당했다고 한다면, 시사토론 음성은 발화의 리듬이 비효율적이었다. 이와 같은 리듬의 흐트러짐은 발성휴지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포즈까지도 발성휴지로 대체시켜 유창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말하기의 리듬이 흐트러져 발생한 발성휴지는 무작정 연습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 B1은 두 가지 면에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는 불필요한 포즈를 없애는 노력이다. 말하기 훈련에서 포즈가 필요한 부분을 대본에 미리 표시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포즈를 두지 않는다. 포즈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계획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포즈가 발생하지 않게끔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포즈가 필요한 부분에서 자칫 포즈가 발성휴지로 바뀌어 나타나지 않도록 의식해서 연습해야 한다.

대본을 활용하는 의의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대본에 표시하여 연습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다. 대본을 작성하는 이유는 수업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습을 반복하기 위해서이다.

5. 결론

공식적인 상황에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직업군에게는 언어의 정확성뿐 아니라 유창성도 요구된다. 본고는 유창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발성휴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대본을 활용한 준비된 말하기 연습을 통해 즉흥적인 상황에서 발성휴지가 개선되는지에 대하여 통번역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즉흥적인 상황의 발성휴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즉흥적인 상황의 노출만을 반복하는 것보다 미리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반복훈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연구질문은 혼자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일정시간을 ‘발

표'하기 위해 미리 대본을 작성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위한 실험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실험 대상의 실험 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1학기 초에 신입생들의 발성휴지를 기록한 결과, A반은 1분당 4.4회, B반은 1분당 4.9회가 확인되었다. 이후 한 학기 동안 A반과 B반의 수업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차이점은 A반은 '발표'를 위해 매주 대본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B반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에서는 대본을 활용해 훈련한 실험군 A반의 발성휴지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학기 및 2학기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본을 활용해 훈련한 A반은 1학기에 1분당 4.4회에서 2학기 1분당 2.3회로 발성휴지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한편, B반은 1분당 9.3회의 발성휴지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발표를 위해 미리 대본을 작성해서 훈련하는 방법은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덧붙여 오히려 발성휴지가 대폭 증가한 B반의 결과를 보면서, 학생들은 서로의 영향을 받아 발성휴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대본을 활용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이 대본이 없는 '토론' 상황에서도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즉흥적인 말하기 '토론'에서 각각 발성휴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반의 '토론'은 1분당 7.8회, B반의 '토론'은 1분당 10.9회였다. 대본을 활용해서 훈련한 A반은 즉흥적인 말하기 '토론'에서도 B반보다 발성휴지가 훨씬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대본을 활용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은 대본이 없는 토론상황에서도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본을 활용한 말하기 훈련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본 작성을 의무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A반은 교수자의 조언에 따라 대본을 작성하였고, B반은 작성하지 않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학습의 열의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학습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설계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비교군 전체의 평균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유의미한 추세의 변화는 확인하였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준비된 말하기 연습을 통한 발성휴지 개선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두 가

지 실험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발표’ 준비를 위해 대본을 활용한 훈련방법은 ‘발표’ 상황에서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즉흥적인 말하기 ‘토론’ 상황에서도 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본 활용 훈련은 통역 상황 이외에 다양한 외국어 말하기 상황에서 발성휴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원보. (2018). 「영한 순차통역 학습자의 비유창성 양상」. 『언어학연구』 23(2): 27-48.
- 남길임. (2011). 「담화 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현상 연구」. 『담화와인지』 18(3): 115-138.
- 서종훈. (2013). 「말하기에 드러난 쉼(pause) 인식 양상 연구」. 『어문학』 119: 27-56.
- 이기갑. (1995). 「한국어의 담화 표지 ‘이제」. 『담화와인지』 1: 261-287.
- 이민. (2016). 「통역의 방향성이 도착어 비유창성에 미친 영향: 중한, 한중 순차통역을 사례로」. 『통번역학연구』 20(1): 49-67.
- 林始恩. (2020). 「談話標識「え」の機能について」. 『일본언어문화』 51: 69-88.
- 최문선. (2015).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학습자의 비유창성 양상 분석」. 『통역과 번역』 17(1): 17-207.
- 최문선. (2018). 「통역사 전문성에 따른 동시통역 비교」. 『번역학연구』 19(5): 173-203.
- 한연희. (2012). 「발표 교육과정 설계」. 『화법연구』 21: 349-377.
- 遠山仁美・松原茂樹. (2005). 「同時通訳における聴きやすさとポーズの関係 ~同時通訳コーパスを用いた被験者実験による分析~」. 『通訳研究』 (5): 137-155.
- 遠山仁美・松原茂樹. (2007). 「英日同時通訳者発話におけるフィラーの出現と聴きやすさとの関係」. 『Interpretation』 7: 39-49.
- 林裕二. (2011). 「会話の非流暢性の機能『日の名残り』を通して」. 『映画英語教育研究』 16: 65-78.
- 深澤のぞみ・ヒルマン小林恭子. (2012). 「日本語パブリックスピーキング能力養成のニーズを探るための基礎調査」. 『金沢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15: 25-43.
- 柳澤浩哉・馮文彦. (2019). 「大学講義における「まあ」」. 『広島大学日本語教育研究』 29: 9-16.
- Fagan, A. (2019, March-April). In the Realm of “Ahh”: Voice and style of speech-including pesky filler words-reveal a lot about a speaker. *Psychology Today*, pp. 40-42.
- Kobe, E. (2017, August). Don't fill it in: unclog the filler words from your conversations. *Success*, pp. 19.
- Mcgregor, D. B. (2016). Speaking professionally: recognizing and eliminating filler words in your speech. *TYL* 20(2): 18.

This paper was received on 30 April 2022; revised on 10 June 2022; and accepted on 20 June 2022.

Author's email address

boae_kim@naver.com

About the author

Boae Kim is an instructor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pretation training.